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6월 후원미사는 15일, 7월 후원미사는 20일, 8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20년 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6,134,976	전월이월금	1,013,206
지 로	1,653,860	우리은행	12,814,180
국민은행	4,734,000	하나은행	1,306,150
조흥은행	95,010	신한은행	910,150
외환은행	522,500	제일은행	125,020
농 협	1,182,000	기업은행	430,000
우 체 국	45,000	CMS	1,303,9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9,5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4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4,204,976	운영비 등
지출 총액	26,204,976	잔액(이월금)	5,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20. 05 / 제47호

펴낸날 2020. 05.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위 성경구절은 부활 제5주일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오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 있고 열의가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우선 물질적이고 외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역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걷고 동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희망의 땅, 한국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 돈, 식사, 돌봄(의료), 주거 공간 그리고 좋은 일자리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도움이 잘 전달되고 의미 있기 위해 '사랑'은 필수이고, 그 사랑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이주민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사랑'은 이주민들의 삶을 더 잘 알고, 더 잘 듣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이어 나가게 합니다. 이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어려움의 하나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과 봉사가 이주민들에게 항상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늘 성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만남'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예수님을 만나듯 환대할 때 생명의 의미 안에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 미사 그리고 작은이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우리는 낯선 이주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있었을 때 이따금 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일이 많았고, 매우 바빴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최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주민들은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리며 다가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한 사람의 외국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 드리기 위해, 한층 더 미소의 중요성, 함께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등의 환대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만남을 성장시켜 나갑시다.

우리 모두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공동체 소식

미사 재개 소식*

지난 2월 26일(재의 수요일)부터 중단된 미사가 4월 23일(목)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사 재개 전 이주사목위원회의 국가별 공동체도 미사 중단을 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신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공동체는 매일 미사와 성시간을 영어, 타갈로그와 세부아노어(Cebuano)어 등 3개어로 인터넷 생방송(live-streaming)으로 내보냈으며 베트남과 남미공동체도 온라인을 통한 주일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미사가 재개됨에 따라 이주사목위원회의 국가별 공동체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대비하며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미사 안에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명단작성, 여분의 마스크 비치하며 조심스럽게 미사 재개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 보육실 공사 : 2층 보육실이 협소하여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등원을 안 하는 동안 두 교실의 벽을 철거하여 하나로 합쳐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비용, 벽지, 에어컨 등은 여러 곳에서 후원해주셔서 원활하게 공사를 마쳐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날 행사 : 코로나19로 외부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 어린이집 내에서 여러 가지 놀이로 어린이날의 기쁨을 대신 하였습니다. 마당놀이 게임, 간식 나눔 등을 하였고 장난감 비행기와 마스크를 나누었습니다. 소소한 놀이에도 어린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아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층보육실 공사 전〉



〈2층보육실 공사 후〉



〈어린이날 행사〉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법무부 사회통합 한국어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도 1학기는 취소되었습니다. 2학기 수업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전면 화상강의로 전환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라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어색하고 불편함도 있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수업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교실에서 북적거리며 소통하며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시간표-

- 2단계 : 05월 07일~07월 23일, 화목 09:30~13:30, 90시간
- 3단계 : 05월 07일~07월 23일, 화목 09:30~13:30, 90시간
05월 04일~07월 20일, 월수 10:00~14:00, 90시간
- 4단계 : 05월 07일~07월 23일, 화목 09:30~13:30, 90시간
05월 04일~07월 20일, 월수 10:00~14:00, 90시간
- 5단계(기본) : 05월 04일~06월 15일, 월수 10:00~14:00, 50시간
(심화) : 06월 22일~07월 06일, 월수 10:00~14:00, 20시간



물품 지원 소식*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추가 지원으로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쌀, 라면 등의 부식과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 500세트를 제작하여 이주민들에게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보문동 성당 교우 몇 분께서 키트제작에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품을 받는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이주민 관련 보도기사 소식*

〈파이낸셜 뉴스, 2020.5.4.〉

법무부, 불법체류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인 코로나19 검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불법체류 단속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받지 않아 지역 사회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이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만5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신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오면서 외국인의 자진 출국 신고를 유도해 왔다.

법무부는 그간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등록외국인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기 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탈자 발생을 억제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보호외국인 강제 퇴거가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몽골과 태국, 베트남과 러시아 등 4개국에 331명의 외국인을 송환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 검진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